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

— 위키 플랫폼과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편찬

장문석** · 김윤진*** · 이은지**** ·

송가배***** · 고자연***** · 김지선*****

[초 록]

이 글은 위키 플랫폼에 기초하여 진행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이라는 논제와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지식의 공동생산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점이다. 2장

* 이 논문은 포니정재단의 포니정 인문학과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조교수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강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 박사과정(교신저자)

주제어: 디지털 인문학,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위키, 조합적 글쓰기, 협업, 데이터, 온톨로지

Digital Humanities, <Archive of Intellectuals in Modern Korea>, Wiki, Combinatorial Writing, Collaboration, Data, Ontology

에서는 위키 플랫폼의 글쓰기가 인문학 글쓰기에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위키는 공유 작업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공동 연구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위키는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합적 글쓰기를 가능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지식의 공동편찬이 열어주는 새로운 인문학 지식과 질문의 발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인문학 지식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했다. 그리고 온톨로지에 따라 입력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때, 새로운 인문학적 논제를 발견하였다. 이 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작업이 인문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이 글이 발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추후 과제이다.

1. 문제 제기 —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

이 글은 위키 플랫폼에 기초하여 진행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이라는 논제와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글이 논의하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디지털 글쓰기로서 위키 플랫폼의 글쓰기는 인문학 글쓰기에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가. 둘째, 위키 플랫폼을 활용한 지식의 공동생산은 기존의 인문학과 상호 보완적인 인문학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인문학 연구와 글쓰기에서 공동 작업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이기백은 1990년대에 발표한 「공동연구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짧은 논고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쓰기의 과정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더라

도, “마지막 결론은 결국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특히 연구결과의 집필은 개인의 몫이라 주장하였다.

분명한 것은 최후의 집필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담당할 어느 한 사람의 것이란 점이다. 물론 거기에는 공동 연구자의 의견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집필자의 몫이다. 그 집필자의 책임을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공동연구라 하더라도 그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 왜 그 점을 그렇게 강조하느냐고 물음의지도 모르겠다. 결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필시 이 같은 의견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듯싶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즉 공동연구가 연구의 분담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학문적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참여자는 모두 거기서 얻어진 결론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대개의 경우가 교조주의적인 강경론자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상례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학문적인 획일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인용문의 뒷부분에서 이기백은 군국주의 일본, 나치스 독일, 그리고 공산주의 소련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학문적인 논쟁이 정치의 영향을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고, 그 예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스탈린의 결정을 거론한다. 식민지와 냉전을 연이어 경험했던 주변부 지식인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이기백은 “개인의 학문적 자유와 책임이 몰각된 전체주의적 성향의 공동연구”를 경계하면서, 연구의

1) 이기백(1994), 「공동연구와 개인의 책임」, 『연사수록』, 일조각, p. 130. 이 글이 이기백의 글을 직접 인용한 경우, 같은 글, pp. 128-131에서 빌려왔다. 이하 모든 밑줄은 인용자의 것이다.

과정은 공동으로 진행하더라도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며 사유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기백의 생애사적 경험과 인문학자로서의 통찰을 고려한다면 공동연구에 대한 그의 염려는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기백은 공동연구에 대한 염려를 쓰는 동시에 공동연구의 의미와 가능성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기백이 발견한 가능성은 흥미하고 고민할 의미가 있다.

① 최근 젊은 연구자들 중에서 이 공동연구의 경향이 많다고 듣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한두 번의 세미나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빈번한 회합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작업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 있다고 하겠다. 나도 최승로의 상서문(上書文)에 대한 연구를 거의 2년 가까이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대학원 강의 시간과 나의 서재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공동으로 검토해 간 경험이 있고, 그 성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²⁾

② 내 생각으로 한다면 공동연구는 결론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가가 공동연구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말이다. 나는 오래 전에 미국 하버드대학의 와그너 교수 주관하에 진행된 유성(儒城)에서의 한국사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 지극히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었으며, 비유를 한다면, 풍성한 학문적 향연을 만끽한 셈이다. 이러한 토론이 거듭되면 될수록 다른 학자의 의견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공동토론의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믿는다. (...) 이같이 다른 학자들과의 협력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사실 학문이란 원래가 남에게 배우고 묻는 것이다.³⁾

2) 이기백(1994), p. 130.

인용문 ①에서 볼 수 있듯, 이기백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공동연구가 증가하였던 당대 한국 인문사회과학 학술장의 상황을 살펴 보면서, 연속적인 공동연구가 개인의 연구역량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가능성을 신중히 진단하였다. 인용문 ②에서 그는 자신의 토론회 참여 경험을 상기하면서 풍요로운 향연이 학술적 즐거움을 가져왔음을 고백하고, 학문의 본질을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력, 혹은 상호작용에서 찾았다. 여기서 그가 발견한 학문의 본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하나의 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연구의 본령을 연구의 결과뿐 아니라 연구의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라는 새로운 인문학 환경과 조건과의 만남을 통해 연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전면화하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이다.

이기백이 공동 연구의 의미를 성찰하였던 1990년대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함께 인문학 글쓰기에서 컴퓨터가 가져온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행된 시기였다. 예컨대, 비평가 김병익은 펜으로 쓰는 글을 산문적인 헤밍웨이적 글쓰기에 비유하고, 컴퓨터로 쓰는 글을 내면지향의 프루스트적 글쓰기에 비유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가 문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소설가 박완서는 “생각하는 속도”와 “컴퓨터로 글을 쓰는 속도”를 비교해보면서 오히려 원고의 양이 줄어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였다.⁴⁾ 비슷한 시기 비평가 정과리는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 경험에 근거하여, 펜으로 쓴 글과 컴퓨터로 쓴 글을 각각 ‘맥락적 글쓰기’와 ‘조합적 글쓰기’로 대

3) 이기백(1994), p. 129.

4) 문학자 하재봉, 김병익, 박완서의 1990년대 워드프로세서 경험과 그들이 경험적으로 기술한 펜으로 쓴 글쓰기와 워드프로세서 글쓰기의 차이에 관한 담론에 대해서는 조형래(2017), 「워드프로세서·글쓰기·문학, 1980·1990」, 『동악어문학』 73, 동악어문학회, pp. 71-88 참조.

별하였다.

펜으로 쓴 원고는 줄글이 가진 완강한 선형적 속성이 맥락과 일관성을 강조한다면, 수정이라는 비선형적 운동이 용이한 컴퓨터로 쓴 원고에서는 글의 각 단편들의 자율과 상관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맥락적 글쓰기로부터 조합적 글쓰기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결론을 보충하기 위해서 컴퓨터 일반의 문제에서 근거를 찾는다. C++ 이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각 프로시저(procedure)를 독립적인 객체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프로그래밍을 보다 효율적이게끔 해주지 않는가? 절차(method)와 데이터를 동시에 품고 있는 클래스(class) 개념이야말로 프로그램의 각 부분들을 중앙 통제로부터 뺀어 나가는 말단 기체로서가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자율성을 가지며 다발을 이루는 독립 모듈(module)들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 모듈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조사는 없는 것이다. 관계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위해 그것들 사이에는 오직 유동적이고 물경물경한 윤희유(연결 효율 가치)만이 흐르는 것이다.⁵⁾

정과리는 ‘펜으로 쓴 원고’와 ‘컴퓨터로 쓴 원고’를 각각 ‘선형적 속성’·‘일관성’을 가진 ‘맥락적 글쓰기’와 ‘비선형적 운동’·‘자율성’을 가진 ‘조합적 글쓰기’로 대별하였다. 나아가 그는 독립적인 의미 단위의 조합으로 다양하고 가변적으로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PC에서 글쓰기의 특징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PC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웹 환경이 보편화되기 전의 상황에서 쓰인 것이지만, 컴퓨터의 글쓰기에서 ‘자율성과 상관성’, 나아가 ‘관계의 다양성과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발견한 정과리의 통찰은 지금 2021년에도 상당한 시사를 제공한다.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가 선형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을 가지며 발

5) 정과리(1998), 『문명의 배꼽』, 문학과지성사, pp. 177-178.

신자가 완성된 정보를 발신한다면,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는 비선형적이고 조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수신자는 자신의 맥락에서 정보를 재구성한다. 이 점에서 아날로그 글쓰기는 그 소통 구조는 직선이라 할 수 있고 개인작업에 보다 적합한 작업의 형식이라면, 디지털 글쓰기는 그 소통 구조는 모자이크 혹은 망의 형식을 띠며 개인작업 뿐 아니라 공동작업에도 적합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⁶⁾ 위키 플랫폼은 디지털 글쓰기의 특징이 잘 반영된 플랫폼으로, 위키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연구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동과 토론이 중심이 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가설이다.

이 글은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를 사례로 위키 플랫폼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와 지식의 공동생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위키 플랫폼에서 진행한 인문학 글쓰기를 비선형적이고 조합적인 글쓰기라는 특징에서 검토하고, 3장에서는 데이터 설계 및 입력을 통한 인문학 지식의 공동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만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현재 데이터 설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데이터 역시 입력 중이다. 따라서 이 글은 결과물로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동의 인문학 연구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유의미한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기록에 가깝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이다.

6) 아날로그 글쓰기와 디지털 글쓰기의 차이에 관한 본 단락의 기술은 김지선·장문석·류인태(2021),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인학대 한국학연구소, pp. 373-374에 근거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2. 협동의 플랫폼과 조합적 글쓰기

2.1. 위키 플랫폼과 협동의 글쓰기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포니재단의 포니정 인문학고 지원으로 진행한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지도> 작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⁷⁾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지도> 작성”에는 한국현대문학, 한국현대사, 중국현대문학 및 디지털 인문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 연구자 19명이 참여하여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 정보 및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⁸⁾ 이후 2021년 1월 중순부터 다시금 연

7)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다음 URL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지도> 작성”의 일정 역시 같은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업의 진행 과정 역시 공개 중이다. <http://dh.aks.ac.kr/imk/>.

8)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지도> 작성”에 참여하여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편찬한 연구자와 담당한 한국 근대 지식인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워크숍에 참여하여 온톨로지 설계 및 데이터 편찬에 참여해주신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① 진행자 : 김지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과, 박홍식), 류인태(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익희), 장동룡(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과, 김사국), 장문석(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유진오),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과, 김남천), 정종현(인하대학교 국어문학과, 신구현), 홍종욱(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청원). ② 참여자 : 강수연(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정애), 고자연(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한설야), 김도민(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삼규), 김명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정백), 김윤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정희), 박정민(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고황경), 서승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최재서), 송가배(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주요섭), 심희찬(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이복만), 유건수(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염상섭), 이은지(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박인환), 임진하(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혜석).

구자 6명이 모여서 확장 작업을 진행하였다.⁹⁾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특징은 공동 연구 및 토론의 전 과정을 위키 플랫폼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위키는 1995년 워드 커닝햄(Ward Cunningham)이 개발자들 간의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개발한 협업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이트 위키위키웹(WikiWikiWeb)을 시초로 한다. 위키(wiki)는 하와이 선주민어로 ‘빨리’(quick)라는 뜻이며, 위키위키웹은 다수의 사용자가 복잡한 HTML 문법을 익지 않고도 간단한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를 익히는 것으로 웹문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고안한 사이트이다. 커닝햄은 위키 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위키를 통해 구축되는 정보의 생성, 수정, 검색,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키는 그 탄생에서부터 간단한 마크업 언어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진이자, 생성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자, 웹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위키는 다수가 협력하여 데이터를 편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¹⁰⁾

위키 플랫폼은 공유와 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위키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역사 보기’ 기능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역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의 편집 과정에 누가 언제 어떠한 편집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과거 판본으로 편집을 되돌릴 수도 있다. 위키의 편집 역사 보기 기능을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각자

9) 2021년 1월 및 2월의 확장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 6명이 이 글의 공동 저자이다.

10) 위키의 특징에 대한 본 단락의 기술은 김지선·장문석·류인태(2021), pp. 375-378에 근거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그림 1] 문서 「최정희」의 편집 역사

수행하는 작업 과정의 진척을 확인하고 의견의 차이를 토론하면서 공동작업의 의미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 이기백은 공동 연구가 단선적이고 경직화된 결론으로 수렴할 위험을 우려하였지만, 위키 플랫폼의 여러 기능을 활용할 경우 연구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생산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공동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시트와 같은 플랫폼은 테이블 형식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동시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과 열로 직조된 시트의 형식을 고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값(value)을 입력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구축의 유연성, 확장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에 비해 위키는 페이지 공유를 통해 여러 연구자가 데이터 설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개별 연구자의 데이터 편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구축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유연하고 확장적이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참여자들은 위키가 협업을 위한 공동의 연구 공간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키를 데이터 편찬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워크숍 2주차에는 위키를 활용하여 구축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검토하였으며,¹¹⁾ 3주차에는 참여자들이 위키문법을 학습하고 이후 직접 위키 플랫폼에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4주차부터는 워크숍의 일정에 따라 개인이 기초 자료 및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 기술 체계인 온톨로지를 설계하였고, 매주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를 점검하고 온톨로지를 수정하였다. 온톨로지 논의 시 위키 플랫폼을 활용하여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는데,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온톨로지’ 페이지의 ‘편집 역사’ 페이지¹²⁾를 보면 수정 횟수가 300여 회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공동연구가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결과물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공유와 협력의 플랫폼인 위키를 적극 활용하여 작업 상황과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토론을 통해 공동의 논제와 결론을 만들어가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2.2. 하이퍼텍스트 및 확장·삽입 기능과 조합적 글쓰기

전통적인 글쓰기의 사유 구조는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것으로 구성된다. 이와 달리 위키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위키 내부 및 외부의 문서가 바로 연결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을 내장한 비선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¹³⁾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웹

11) 장동룡(2020),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주제로 한 가상박물관 설계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http://mangwoopark.cafe24.com/wiki/> (검색일: 2021.2.22.).

12) 'IMK Ontology 편집 역사' 페이지 http://dh.aks.ac.kr/imk/index.php?title=IMK_Ontology&action=history.

13) 빌렘 플루서(2015), 윤종석 역,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xbooks, p. 237; 김지선·장문석·류인태(2021), p. 378 참조.

상에 있는 이미지, 동영상,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자원을 위키와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개별 인물 정보를 정리하고, 각 인물 사이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특히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인문학 정보가 충분한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무엇보다 학술적 신뢰도를 갖출 수 있는 방법과 형식을 토론하였다. 개별 인물의 문서 하단에는 <참고자료> 단락을 배치하고 세부적으로는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신문’을 제시하고, 각각의 문헌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사용자들이 바로 클릭하여 서지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물의 연보를 작성할 때에는 인물의 개별 행적에 대하여 그 행적을 확인한 정확한 출처를 기입하고 그 출처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였다.

[그림 2]는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 생성된 인물 「최정희」 위키 페이지의 연보 부분에서 1933년 4월 21일 부분을 예로 든 것이다. 편찬자 김윤진은 1933년 4월 21일 최정희가 『동아일보』에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을 발표했다는 정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를 김복순(2012)의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소명출판)의 「작품목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 책의 서지 정보를 RISS 사이트의 도서정보 링크로 연결하여 제시하여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 다른 한 편, 편찬자는 1933년 4월 21일의 행적에서는 데이터로 처리한 ‘『동아일보』 1933년 4월 21일’과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을 각각 아카이브의 위키 페이지로 생성하고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였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할 경우, 「『동아일보』 1933년 4월 21일」 문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1933년 4월 21일」 문서에서는 최정희가 쓴 글의 기사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의 제목을 제시하고, 링크를 통해 웹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한 네이버



[그림 2] 인물 「최정희」의 연보 중 1933년 4월 21일의 하이퍼텍스트(14)

뉴스라이브러리 사이트로 연결하였다. 현재는 이날 신문에 실린 기사 중 최정희의 기사만 발췌하여 정리하였지만, 추후 아카이브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면서 다른 기사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원 자료 혹은 웹 자원을 확인하면서 편찬자는 기존 작품 연보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도 하였다. 김복순(2012)의 「작품목록」, 259쪽에 제시된 기사 제목을 원자료를 확인하여 바로 잡고 그 정보를 페이지에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 1972년 6월 25일 최정희는 대한민국 예술원상 본상을 수상하는데, 당시 최정희의 수상소식은 <대한뉴스> 제889호(1972.7.22.)로 방영되었다. <대한뉴스>는 현재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구축한 사이트 <e영상역사관>의 '대한뉴스관' 및 KTV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 'KTV 대한뉴스'에서 동영상 서비스 중인데, 온라인 서비스 중인 영상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였다. 또한 최정희가 문학자들과 주고받았던 서신과 엽서를 영인하여 김영식 편(2001)의 『작고문인 48인의 육필서한

14)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최정희」 문서(책임편찬: 김운진)
<http://dh.aks.ac.kr/imk/index.php/최정희>.

집』(민연)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육필서한의 이미지 일부 역시 스캔하여서 “파일 올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위키에 업로드하여 지정한 파일 이름을 표제어로 한 위키 페이지로 만든 후 위키 내부 링크를 통해 연결하였다.¹⁵⁾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장기적으로 하이퍼링크의 기능을 활용하여, 웹에서 확인하고 연결 가능한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서지 정보 등을 연결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웹에서 제공되는 인문학 정보 중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가 웹 환경에서 구축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그 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세밀한 인물 연보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종이나 책에 연보를 정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위키에 연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였다. 웹에 존재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자원은 기존의 책에 실려있던 연보에서는 연결이나 인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용되지 못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서는 웹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인 연보를 구축하였다. 세 번째로 작업자만이 비선형적 쓰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도 비선형적 읽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독자의 역할은 창작자의 뜻을 완성하는 것에 한정되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독자의 역할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유한 의미의 망(Netz)을 구성하는 존재라 할 수

15) 단행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스캔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이미지의 저작권자를 밝혔다. 현재의 작업은 위키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 근대 지식인과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후일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보다 본격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있다.¹⁶⁾ 독자들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한국근대지식인의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맥락에 따라서 링크를 연결하면서 적극적인 비선형적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위키의 하이퍼텍스트 기능은 위키 내외부 페이지의 연결을 넘어서 위키의 확장(Extension) 및 삽입(Embedding) 기능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키 엔진이 제공하는 확장 기능을 설치할 경우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의 멀티미디어 자원으로 출력할 수 있다.¹⁷⁾ 공동 연구의 과정에서 식민지와 냉전을 경험한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사를 시각화하는 데에는 시간 · 공간 ·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오픈 소프트웨어 TimeMapper¹⁸⁾를 위키에 삽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참여자들은 생애사 연보 작성 시 인물이 거주하거나 활동했던 공간 및 시간 정보와 그 출처를 함께 입력하였고,¹⁹⁾ 이를 TimeMapper 제작 형식에 맞추어 인물의 생애사를 슬라이드 단위로 정리하는 시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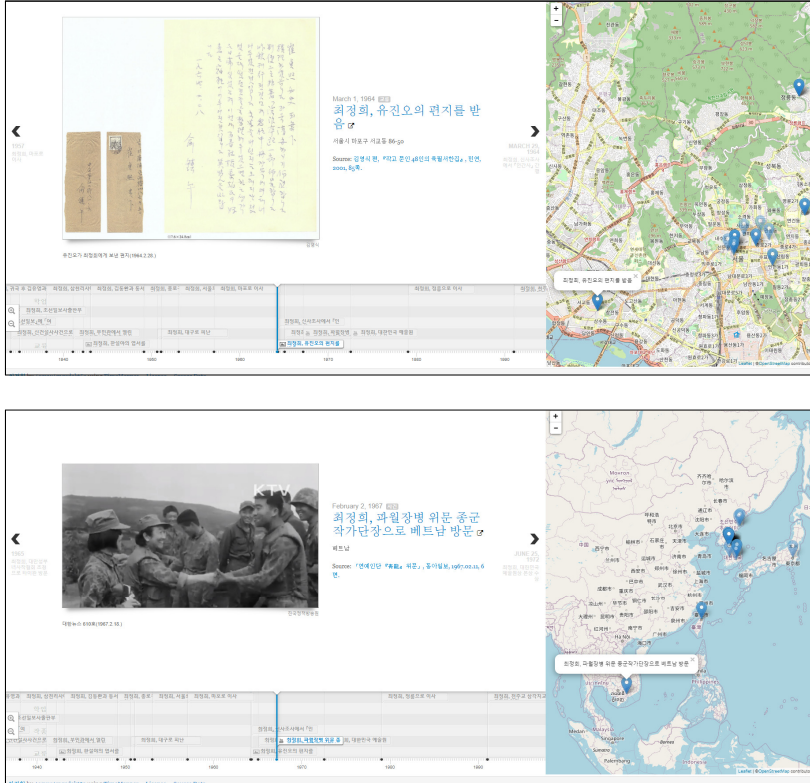
[그림 3]은 최정희의 시 · 공간정보를 TimeMapper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그의 생애 중 31개의 주요 사건을 선정하여 ‘생애’, ‘학업’, ‘직업’,

16) 빌렘 플루서(2015), 윤종석 역, p. 127, p. 246.

17) 위키의 삽입 및 확장 기능에 관해서는 김지선 · 장문석 · 류인태(2021), pp. 380-381에 근거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18) <https://timemapper.okfnlabs.org/>.

19) 공간 좌표는 크게 거주지의 공간좌표와 거주지가 아닌 공간 좌표로 대별할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공문서나 판권면의 기록, 서신, 연구서 등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주소를 확인하였다. 거주지가 아닌 공간의 경우, 해당 사건 등과 관련한 공간의 좌표를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최정희 24번 슬라이드는 유진오가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인데 편지 봉투에서 최정희의 주소를 확인하였다. 최정희 11번 슬라이드의 내용은 “최정희, 삼천리사에 입사”이다. 이것은 삼천리사와 관계가 있는 사건인데, 당시 출판물의 판권면을 통해 삼천리사의 주소를 확인하였다. 당시의 주소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소와 위치, 그리고 위경도 좌표 등의 공간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림 3] 인물 「최정희」의 타임맵 24번 슬라이드 및 27번 슬라이드

‘사건’, ‘작품’, ‘교류’ 등의 6개의 태그(Tag)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²⁰⁾ 각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중요성 여부는, 기존의 문학사적 평가를 고려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가 디지털 환경에서 다방면으로 확장 가능한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중요 사건을 선정하고 데이터화 하였다. 예컨대 [그림 3] 상단 24번 슬라이드에서 기술한 유진오의 편지를 받은 사건

20) 최정희의 Timemapper, <http://timemapper.okfnlabs.org/4sguw4mgcdokt5a/imk>.

과 [그림 3] 하단 27번 슬라이드에서 기술한 최정희의 베트남 방문은 이전의 연보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한 연표로서 TimeMapper는 다양한 정보와 웹 자료를 한 군데에서 출력한다는 장점이 있다. 상단 24번 슬라이드에서 보듯, 시간 정보(1964년 3월), 연보(최정희, 유진오의 편지를 받음) 및 연보의 출처와 링크, 공간 정보(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86-50), 공간 좌표(37.550486619587545, 126.92355273520533) 및 마커, 시각자료(유진오가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1964.2.28.)) 및 시각 자료의 출처 및 저작권자 등의 정보를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27번 슬라이드에서는 ‘대한뉴스’ 동영상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Timemapper는 각 슬라이드의 위경도 좌표를 지도에 마커로 출력하여, 한국 근대 지식인의 이동 영역과 동선을 추측할 수 있다. 마커 출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림 3] 26번 슬라이드의 우측 지도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서울’ 정도로 막연하게 이해하였던 최정희의 공간을, ‘마포구 서교동 86-50’, ‘성북구 정릉 4동 산장 아파트’ 등 보다 구체적인 장소로 변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최정희의 이동의 경로를 발견하도록 한다. 최정희의 Timemapper 26번 슬라이드인 1965년의 타이완 방문, 27번 슬라이드인 1967년 베트남 방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사례는 지금까지 최정희의 연보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거나 생략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림 3] 하단 27번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 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난 타이완과 베트남에 생성된 마커의 존재는 쉽게 독자의 눈에 띈다. 그리고 마커와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만성 부녀사작협회와 파월중국작가단 등의 정보는 해방 이후 최정희의 이동과 실천이 어떤 단체와 맥락 속에서 수행되었는가라는 또 다른 논제를 제기한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위키의 확장과 삽입 기능을 활용하

여, 검증된 인문학 정보와 지식을 웹자원과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형적 글쓰기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사의 특징을 조합적 글쓰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와 새로운 인문학 지식의 생산

3.1. 공동 토론과 한국 근대 지식인 온톨로지 설계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19명의 연구자들이 각 1명의 한국 근대 지식인을 선정하고 그의 생애사를 위키 플랫폼에 정리하는 프로젝트로, 그 중심은 한국 근대 지식인 19명에 대한 위키 페이지이다. 이때 근대지식인 19명의 생애와 실천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과학에서 ‘온톨로지’(Ontology)는 재현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 기술체계를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존재는 근본적으로 0과 1로 분절되어 있다. 현실의 정보를 디지털이라는 조건에서 기술하기 위해서는 0과 1을 기본으로 하는 ‘분절적 존재자’로 재인식하고, 그 ‘분절적 존재자’를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해야 한다. 즉 현실(<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경우 지식인의 생애와 실천)을 어떠한 ‘분절적 존재자’의 체계로 정리하고 재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온톨로지 설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온톨로지 설계에는 그 연구영역(Domain)만의 전문적인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며, 온톨로지는 편찬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과 지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설계된다.²¹⁾

21) 디지털 미디어에 관해서는 이시다 히데타카(2017), 윤대석 역,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 사회평론, pp. 123-132 참조. 온톨

“최정희는 『문장』 1939년 9월호에 「지맥」을 발표하였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어떠한 데이터 체계에 따라 데이터로서 입력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온톨로지 설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온톨로지 설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온톨로지 설계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였고,²²⁾ 웹 온톨로지 언어(OWL, Web Ontology Language)의 어휘와 문법을 참조하여 일부 준용하였다.

- (가) ‘최정희’는 ‘『문장』 1939년 9월호’에 ‘「지맥」’을 발표하였다.
- (나) ① ‘「지맥」’은 ‘최정희’를 저자로 두다.
- (나) ② ‘「지맥」’은 ‘『문장』 1939년 9월호’에 게재되다.
- (다) ① 지맥^{말글} author 최정희^{말글}
- (다) ② 지맥^{말글} isContainedIn 문장193909^{저서}

(가) “‘최정희’는 ‘『문장』 1939년 9월호’에 ‘「지맥」’을 발표하였다.”라는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사적 정보는 트리플(Triple, S-V-O)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 ① “‘「지맥」’은 ‘최정희’를 저자로 두다.”와 ② “‘「지맥」’은 ‘『문장』 1939년 9월호’에 게재되다.”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지맥’, ‘최정희’, ‘『문장』 1939년 9월호’ 등은 각각 개별 개체인 ‘노드’(Node) 데이터가 되며, ‘저자로 두다’, ‘게재되다’가 개체 사이의 관계인 ‘엣지’(Edge) 데이터가 된다. 클래스(Class)는 공동의 속성을 가진 개체(Individual)를 묶는 범주인데, ‘지맥’은 ‘말글’(Writing) 클래스에, ‘최정희’는 ‘인물’(Person) 클래스에, ‘『문장』 1939년 9월호’는 ‘저서’(Volume) 클래스에 포함된다. 편찬자들은 노드 데이터 입력 시 특정 약물²³⁾은 입력하지 않고 노드 데이터가 속하는 클레

로지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김현·임영상·김바로(2016),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p. 164; 류인태(2019),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pp. 64-66.

22) http://dh.aks.ac.kr/Edu/wiki/index.php/인문정보학_온톨로지_설계_가이드라인.

스의 한글명칭을 병기²⁴⁾하기로 하였으며, 옛지 데이터는 로마자로 표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나) ①과 ②의 문장은 온톨로지의 약속에 따라 각각 (다) ①과 ②의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 (라) ① ‘『문장』 1939년 9월호’는 ‘『문장』’의 간행본이다.
- (라) ② ‘『문장』 1939년 9월호’는 ‘1939년 9월’에 발행되다.
- (마) ① 문장193909^{저서} isEditionOf 문장^{문헌}
- (마) ② 문장193909^{저서} isPublishedIn 1939년09월^{시간}

보다 정교한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저서(Volume) 클래스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단위의 책인 ‘『문장』 1939년 9월호’와 ‘『문장』 1939년 10월호’ 등을 종합하는 추상적이고 의미적 단위의 책인 ‘『문장』’을 별도의 클래스인 문헌(Book)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라) ① “『문장』 1939년 9월호’는 ‘『문장』’의 간행본이다”와 같이 저서(Volume)와 문헌(Book) 양자를 ‘간행본이다’라는 관계어로 연결할 수 있다. 개별 잡지의 발행 시간을 데이터로 입력하고자 한다면, (라) ② “『문장』 1939년 9월호’는 ‘1939년 9월’에 발행되다”처럼 저서(Volume)와 시간(Time) 클래스에 속하는 각각의 개체를 ‘발행되다’와 같은 옛지 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다. (라) ①과 ②의 문장은 온톨로지의 약속에 따라 각각 (마) ①과 ②로 표현이 가능하다.

온톨로지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온톨로지의 클래스와 노드의 관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하며 그것은 개인의 연구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토론으로 가능하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와

23) 괄호와 하이픈을 제외한 문장부호, 꺾쇠, 겹낫표 등과 같은 기호를 이른다.

24) 예컨대 ‘『지맥』’은 ‘말글’(Writing) 클래스에 속하므로 지맥^{말글}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실천이라는 연구대상의 의미와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한 온톨로지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거듭 토론하였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참여자들은 온톨로지 설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²⁵⁾라는 선행 연구의 통찰에 동의할 수 있었다. 2020년 1차 워크숍에서는 4주차와 5주차에 온톨로지에 관한 토론만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워크숍 과정에서도 토론을 진행하였다. 2021년 확장 작업 과정에서도 온톨로지 정교화 논의를 수행하였다. 온톨로지 설계는 실시간으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위키의 ‘온톨로지’ 페이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는 작업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토론의 결과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① [개인작업] 각 편찬자가 개인이 담당할 인물 생애사의 주요 데이터를 검토하고 일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데이터 입력을 위한 클래스(Class)와 관계(Relation) 온톨로지를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 ② [공동작업] 각자가 제안한 온톨로지를 종합하면서 중복된 온톨로지를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온톨로지를 논의하였다.
- ③ [개인작업] 설계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각 편찬자는 담당 인물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온톨로지를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온톨로지를 정리하였다.
- ④ [공동작업]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수정·추가·삭제가 필요한 온톨로지가 무엇인지 확인 후 온톨로지를 보완하였다.
- ⑤ [개인작업] 수정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새로운 성격의 자료를 발견한 경우, 새로운 온톨로지를 제안하였다.
- ⑥ [공동작업] 정기적으로 다른 편찬자가 입력한 페이지의 데이

25) 류인태(2020),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p. 404.

터와 온톨로지를 검토하여, 서로의 데이터 입력을 상호 검증하였다.

⑦ 상기 ③~⑥의 과정을 반복한다.

온톨로지 설계의 과정은 위에서 볼 수 있듯, 개인작업과 공동작업의 조화에 근거한 공동의 지식생산을 기도하였다. 물론 [개인작업] 역시 [공동작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1차 워크숍에서 각기 전공과 관심이 다른 편찬자 19명은 임의의 근대 지식인 19명을 선택하였는데, 인물 선택의 유연성을 통해서 범용성 있고 활용가능성 높은 온톨로지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우선 [개인작업]①으로 인물의 생애사를 연보로 정리하고, 한 인물의 생애에 기반하여 온톨로지를 가설적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공동작업]②에서 개별 연구자가 제안한 온톨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인물의 생애와 실천의 특징에 따라 온톨로지 역시 서로 다른 성격을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인 박홍식의 경우 기업(Company)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옛지 데이터가, 아시아와 서구 곳곳을 이동하였던 주요섭의 경우 공간(Location)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옛지 데이터가, 동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시인 박인환의 경우 단행본과 잡지가 포함된 저서(Volume)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옛지 데이터가, 월북 이후 중요한 관료였던 한설야의 경우 사건(Event)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옛지 데이터가,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냉전 아카데미즘의 중심에 있던 유진오의 경우 기관(Institution)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옛지 데이터가, 기자이나 소설가였던 최정희의 경우는 신문(Newspaper)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옛지 데이터가 특히 풍성하게 설계되었다. 편찬자들은 각자가 담당한 근대 지식인의 생애와 실천의 특징을 잘 기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온톨로지를 설계하여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작업]②에서는 개

별 연구자가 설계한 온톨로지를 통합하고 수정하며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협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공동의 작업으로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와 실천의 데이터 입력을 위한 기본 온톨로지를 도출하였다.

처음 [개인작업](①)의 결과 작성한 온톨로지는 각 인물의 특징만을 반영한 온톨로지였지만, [공동작업](②)의 결과 도출한 기본 온톨로지는 신문(Location), 기업(Company), 공간(Location), 저서(Volume), 사건(Event), 기관(Institution) 등 다양한 클래스를 중심으로 풍요롭게 설계되어 있다. [공동작업](②)을 바탕으로 한 다음 단계의 [개인작업](③)은, 기본 온톨로지에 기반하여 개별 인물 페이지의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정희의 경우 [개인작업](①)에서는 주로 신문(Newspaper) 클래스와 관련된 노드 데이터와 엣지 데이터를 입력했지만, [개인작업](③)에서는 기업(Company), 공간(Location), 저서(Volume), 사건(Event), 기관(Institution) 등 다양한 클래스와 관련된 생애사와 실천을 다시 검토하고, 노드 데이터와 엣지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였다. 최정희 개인의 생애사만을 정리한다면 누락했을 수도 있을 공간(Location), 사건(Event), 기관(Institution)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인물의 생애사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보다 풍성하게 정리하는 셈이다. 나아가 최정희의 생애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다른 인물의 생애사를 기반으로 제안된 온톨로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예컨대, 사건(Event)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엣지 데이터는 한철야의 실천을 바탕으로 제안한 온톨로지인데, 최정희의 실천을 사건(Event) 클래스에 맞추어 입력해보면서 그 온톨로지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인작업](③)을 통해 온톨로지를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온톨로지를 수정하는 [공동작업](④)을 수행하였다. 이후 수정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개인작업](⑤)으로 다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기존 온톨로지로 정리가 불가능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경우 온톨로지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시각자료(Visual)와 웹자원(WebResource), 필사본(Manuscript) 등의 클래스는 2021년 확장 작업에서 자료의 발견으로 추가한 온톨로지이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편찬자들이 편찬 중인 위키 페이지를 상호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수하는 [공동작업](⑥)도 필요하다. 이후 [개인작업](③)에서 [공동작업](⑥)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⑦의 과정이다. 현재는 ⑦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입력하는 한편,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 온톨로지를 보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동의 작업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서 설계한 온톨로지의 클래스(Class)와 관계(Relation)는 다음 <표 1>과 같다.²⁶⁾ 클래스(Class)는 총 15항목을 설계하였다.

<표 1>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클래스(Class) 항목

Class	Description
Person 인물	한국 근대 지식인 19명 및 19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Group 단체	인물이 소속하거나 활동한 모임
Institution 기관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기관
Company 기업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기업
Event 사건	학술적 논쟁, 정치적 사건, 사회적 스캔들 등과 같은 사건
Time 시간	인물이나 사건 등과 관련된 시간 정보
Location 공간	인물, 사건, 기관, 기업 등과 관련된 공간 정보
Newspaper 신문	개별 일자의 신문

26)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온톨로지’ 페이지 http://dh.aks.ac.kr/imk/index.php/IMK_Ontology.

Class	Description
Press 언론	개별 일자의 신문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의 신문
Manuscript 필사본	물리적 형태의 기록물로, 메모, 엽서, 편지, 원고 등의 필사본
Writing 말글	인물이 창작한 개별 작품
Volume 저서	개별 말글을 포괄하는 구체적 개념의 책
Book 문헌	개별 저서를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의 책
Visual 시각자료	물리적 형태의 기록물로, 사진, 그림, 캐리커처, 영상 등의 시각자료
WebResource 웹자원	웹에서 참고 가능한 자원

앞서 설계한 15가지 클래스에 속하는 여러 개체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정리하여 총 45가지 관계(Relation)를 설계하였다.²⁷⁾

〈표 2〉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관계(Relation) 항목

ObjectProperty	Description	Domain	Range
ekc:hasSon	A는 B를 아들로 두다.	Person	Person
ekc:hasDaughter	A는 B를 딸로 두다.		
imk:isSpouseOf	A는 B를 배우자로 두다.		

27) 데이터 관계 설계는 본 연구를 위한 독립적인 온톨로지를 상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imk)’을 접두어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 기술과 연계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인문학 방면의 온톨로지, 예컨대 사회적 관계 기술 온톨로지(foaf), 더블린 코어의 메타데이터 형식(dcterms), 유로피어나 데이터 모델(edm), 웹 온톨로지 언어(owl),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설계한 한국문화 Encyve 온톨로지(ekc) 등을 검토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기술된 정보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ObjectProperty	Description	Domain	Range
imk:hasNiece	A는 B를 조카로 두다.	Person	Person
owl:sameAs	A는 B와 동일하다.		
imk:isBornIn	A는 B에 태어나다.		Time
imk:diedOn	A는 B에 사망하다.		
imk:isBornAt	A는 B에서 태어나다.		Location
imk:hasNativePlace	A는 B 출신이다.		
imk:isBuriedAt	A는 B에 묻히다.		
imk:visits	A는 B를 방문하다.		
imk:livesAt	A는 B에 거주하다.		
foaf:isMemberOf	A는 B의 구성원이다.		
ekc:isFounderOf	A는 B의 설립자이다.		Company, Institution
imk:worksAt	A는 B에서 근무하다.		
imk:completesCourse	A는 B를 수료하다.		Institution
imk:graduates	A는 B를 졸업하다.		
imk:takesCourseAt	A는 B에서 수학하다.		
imk:dropsOutOf	A는 B를 중퇴하다.		
ekc:participatesIn	A는 B에 참가하다.		Event
imk:hosts	A는 B를 주최하다.		
imk:hasImage	A는 B의 영상이다.	Visual	
imk:hasVedio	A는 B의 동영상이다.		
imk:isAdjunctTo	A는 B의 부속이다.	Institution	Institution
imk:isPredecessorOf	A는 B의 전신이다.	Institution,	Institution
imk:isLocatedIn	A는 B에 위치하다.	Company	Company
imk:isMergedInto	A는 B의 합병되다.	Company	Company
imk:isOccuredIn	A는 B에 일어난다.	Event	Time
imk:isSetIn	A는 B에서 일어난다.		Location
dcterms:isPartOf	A는 B의 부분이다.	Time, Location	Time
			Location
ekc:creator	A는 B를 창작자로 두다.	Manuscript	Person
imk:recipient	A는 B를 수신인으로 두다.	Manuscript	Person
imk:isSourceMaterialOf	A는 B의 원(原)자료이다.		Writing

ObjectProperty	Description	Domain	Range
imk:isContainedIn	A는 B에 게재된다.	Writing, Visual	volume, Newspaper
imk:isReissueOf	A는 B의 재간행본이다.	Volume	Volume
imk:editor	A는 B를 편집자로 두다.		Person
imk:isAdaptationOf	A는 B의 개작이다.	Volume, Writing	Volume
imk:isTranslationOf	A는 B의 번역본이다.		Writing
			Volume, Book
			Writing
ekc:author	A는 B를 저자로 두다.		Person
ekc:translator	A는 B를 번역자로 두다.		
imk:isEditionOf	A는 B의 간행본이다.	Volume,	Book
imk:isPublishedIn	A는 B에 발행된다.	Newspaper	Press
dcterms:publisher	A는 B에 의해 간행된다.	Volume, Press	Time
			Company
ekc:OnlineReference	A는 B의 웹자원이다.	Visual	WebResource
edm:isRelatedTo	A는 B와 관련이 있다.	ALL	ALL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장기적인 지향은 식민지와 냉전을 경험한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와 실천을 정교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 인물의 삶은 “교환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²⁸⁾ 것이기 때문에, 인물의 생애와 실천을 데이터로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톨로지를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

현재까지 설계된 온톨로지를 토대로 하여 19명의 근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편찬된 노트 데이터는 1217건이고 엣지 데이터는 1669건이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참여자들은 각 인물과 관련된 노트(Node) 데이터와 엣지(Edge) 데이터를 개별 인물의 위키 페이지에 직

28) 질 들뢰즈(2004),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p. 26.

접 입력하였으며, 개별 노드는 각각 별도의 위키 문서로 작성하였다.

온톨로지 체계를 위키 문서 편찬에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위키의 기능 중 ‘분류’(Category)와 ‘틀’(Template)을 활용하였다.²⁹⁾ ‘분류’는 위키 페이지에 일종의 색인(index)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특정 맥락의 정보를 그가 속하는 범주에 맞추어 자동으로 목록화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모든 노드 데이터의 위키 문서 하단에 분류명으로 클래스를 기입하였는데, 위키 문서 하단에 생성된 분류 버튼을 클릭하면 클래스 별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현재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서 ‘Person’이라는 분류명으로 색인된 문서를 출력한 페이지이다.

‘틀’은 여러 위키 문서들 사이의 공통된 정보항을 모아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물(Person)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가 공통으로 지니는 속성(DatatypeProperty)을 한데 모아 인물



[그림 4] ‘분류’ 인물(Person) 페이지³⁰⁾ [그림 5] 문서 「최정희」의 인물정보 ‘틀’

29) 이 단락의 ‘분류’와 다음 단락의 ‘틀’에 관한 서술은 김지선·장문석·류인태 (2021), p. 379에 근거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30) <http://dh.aks.ac.kr/imk/index.php/분류:Person>.

정보 틀을 설계하였다. 우선 샘플로 확장 작업에 참여하는 편찬자가 담당하는 근대 지식인 6인³¹⁾의 인물 페이지 우측 상단에 인물정보 틀을 삽입하였다. [그림 5]는 인물 페이지 최정희의 인물정보 틀이다. 페이지 본문에 기술되는 인물의 생애사 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대표명칭 및 표기, 생몰년, 출생지 및 사망지, 국적, 대표저서, 대표직함, 배우자, 활동유형 등의 정보를 인물정보 틀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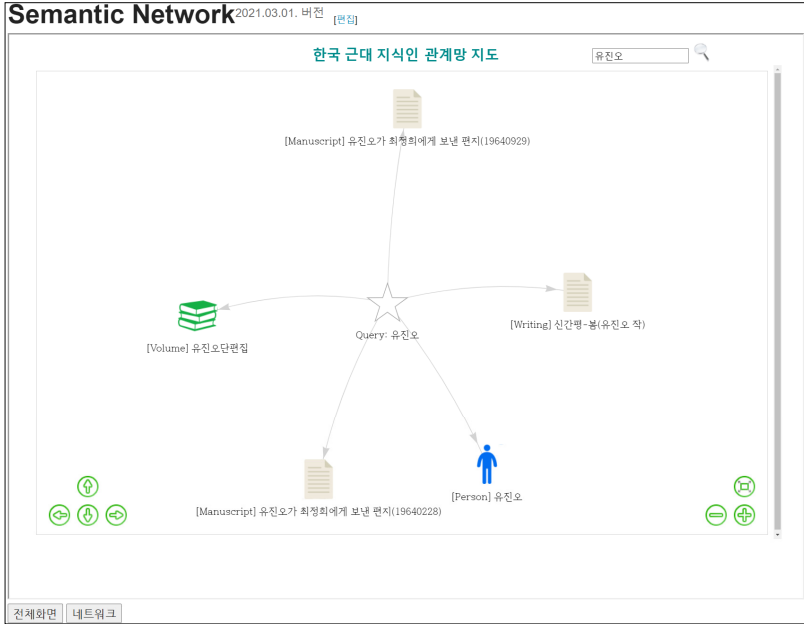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키 플랫폼에 구축한 데이터를 RDB (SQL)에 입력하여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Semantic Network Graph)로 출력하였다.³²⁾ 현재 [그림 6]과 같이 노드 데이터 단위의 문자열(n-gram) 검색이 가능하며 [그림 7]과 같이 중심 노드 데이터와 2단계로 연결된 엷지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다.

19명의 연구 대상은 아카이브의 제목에서 지향은 ‘한국 근대 지식인’이라는 지향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그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후 보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을 통해 온톨로지를 보완하고 데이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연구영역에서 얻은 인문학적 통찰과 지혜를 더할 때 온톨로지는 보다 정교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노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2단계까지 출력해 주는 단순한 문자열 검색 시스템이 아니라, 질의어(Query)를 통해 노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고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면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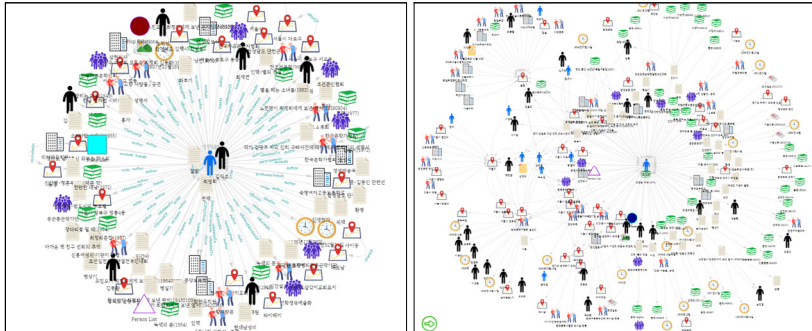
다만 많은 데이터를 입력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도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 참여한 편찬자들은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

31) 박홍식, 박인환, 유진오, 주요섭, 최정희, 한설야.

32)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Semantic Network Graph)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연구소의 인문정보학 교실에서 개발되었다.



[그림 6]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지도 검색창³³⁾



[그림 7] 최정희인물의 1단계 출력(좌) 및 2단계 출력(우)

33)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http://dh.aks.ac.kr/imk/index.php/한국_근대_지식인_관계망.

를 통해 새로운 인문학적 논제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장 2절, 3절, 4절에서는 그러한 발견의 의미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3.2. 데이터 작업을 통한 생애사 기술의 새로운 쟁점 발견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작업은 웹 환경에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생애와 실천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때 웹 환경 및 데이터라는 활용하여 공동으로 인문학 연구를 수행한 것의 장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참여자들은 온톨로지 설계와 데이터 편찬에 근거하여 인물의 생애와 실천을 정리를 경우, ‘사건’이라는 요소를 기존의 아날로그 연보보다 훨씬 풍요롭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이로 출판된 기존의 선형적 기술에서 ‘사건’의 경우 “1929년 03월 이강국, 최용달과 동경으로 사상순례를 떠남. 미키 기요시(三木清)를 비롯한 일본 사회주의자를 만나서 ‘정성제대라는 일본 학문의 경성지점에서 얻은 나의 학문이 최소한 본점에는 통할 수 있다는 확인을 얻음.”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전부였다. 차이가 있다면 지면의 분량에 따른 정보의 정밀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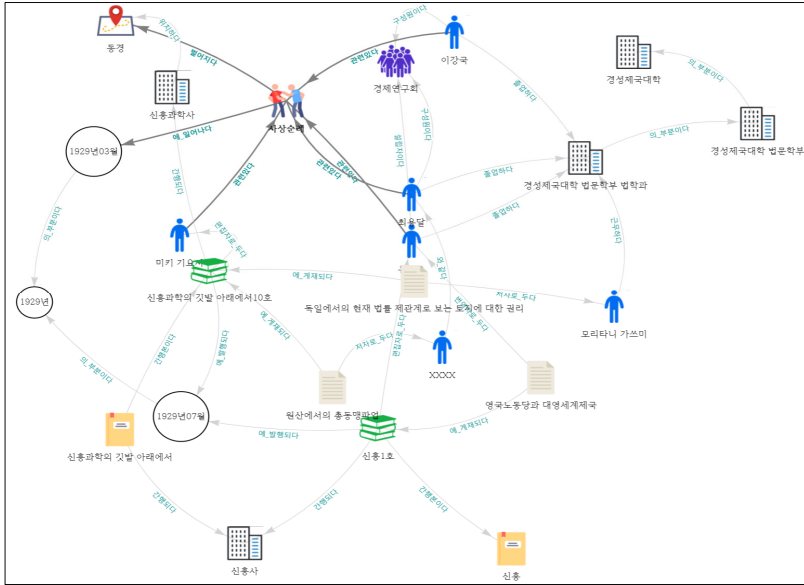
하지만 온톨로지 설계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사건(Event)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에는 인물(Person), 단체(Group), 기관(Institution), 시간(Time), 공간(Location), 시각자료(Visual), 웹자원(WebResource) 등 다양한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키 플랫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오의 페이지에서 사상순례^{사건} 노드를 클릭할 경우, 별도로 편찬된 노드 사상순례^{사건}의 위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 페이지는 사상순례^{사건}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작성한 페이지로 사상순례^{사건}의 개요와 관련 인물 및 정보, 그리고 원자료 및 주요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별 편찬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데이터 일부를 편집 및 선별하여 사상순례^{사건}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³⁴⁾

인물 연보의 정보 “1929년 03월 이강국, 최용달과 동경으로 사상순례를 떠남. 미키 기요시(三木清)를 비롯한 일본 사회주의자를 만나서”를 온톨로지에 따라 입력했기 때문에, 사상순례^{사건} 노드와 1차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1929년03월^{시간}, 유진오^{인물}, 이강국^{인물}, 최용달^{인물}, 미키_기요시^{인물}, 동경^{공간}이다. 하지만 공동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 위의 [그림 8]에서 보듯, 사상순례^{사건}와 연관된 데이터가 제시하는 정보는 보다 입체적이고 풍요롭다. 함께 사상순례^{사건}를 떠난 유진오^{인물}, 최용달^{인물}, 이강국^{인물}이 모두 경제연구회^{단체}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진오^{인물}와 동료들이 동경^{공간}에서 만난 미키_기요시^{인물}가 잡지 신흥과학의_깃발_아래에서^{문헌}의 편집자로 이 잡지는 동경^{공간}의 신흥과학사^{기관}에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연보에 기술된 사건의 맥락을 풍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미 있는 연결을 이어간다. 사상순례^{사건}가 일어난 것은 1929년03월^{시간}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이 시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1929년 07월^{시간} 유진오^{인물}와 경성제국대학^{기관} 졸업생들은 잡지 신흥^{문헌}을 창간한다. 유진오는 신흥1호^{저서}의 편집자였으며, 신흥1호^{저서}에 영국노동당과 대영세계제국^{말글}을 번역 기고한다. 미키_기요시^{인물}가 동경^{공간}에서 간행한 신흥과학의_깃발_아래에서^{문헌}와 경성제국대학^{기관} 졸업생들이 간행한 신흥^{문헌}은 그 이름이 비슷하기에 관계를 짐작할 수 있고, 그 매개로 유진오^{인물}의 사상순례^{사건}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이상의 상황을 보여

34) 이 글의 [그림 8]-[그림 10]은 Vis.js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 도구 (MakeGraph)를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편집자가 온톨로지에 따라 입력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것이다. 참고 URL: http://dh.aks.ac.kr/Edu/wiki/index.php?title=MakeGraph_2018.



[그림 8] 사상순례사건의 지식관계망³⁵⁾

준다. 신용^{분현}이 창간된, 즉 신흥1호^{저서}가 발간된 1929년07월^{시간}, 신흥 과학의_깃발_아래에서10호^{저서}가 동경^{공간}에서 간행된다. 신흥과학의_깃발_아래에서10호^{저서}에 xxx^{인물}은 원산에서의_총동맹파업^{말글}을 기고 하는데, xxx^{인물}은 유진오^{인물}와 마찬가지로 경성제국대학^{기관} 졸업생이고 경제연구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함께 사상순례^{사건}에 동행했던 최용달^{인물}과 동일인물이다.³⁶⁾ 또한 유진오^{인물} 등이 졸업한 경성제국대학^{기관} 법문학부^{기관} 법학과^{기관}에는 모리타니_가쓰미^{인물}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신흥과학의_깃발_아래에서10호^{저서}에 독일에서의_현재_법률_제관계로_보는_토지에_대한_권리^{말글}를 기고하였다. 신용^{분현}과 신흥과

35)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사상순례^{사건}’ 문서 <http://dh.aks.ac.kr/imk/index.php/사상순례>.

36) 윤대석(2017), 『신흥』과 경성제대 학지, 『국제어문』 73, 국제어문학회, p. 166.

학의 깃발 아래에서^{분현}는 그 이름이 유사하고 유진오^{인물} 등의 사상순례 사건으로 막연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리타니_가쓰미^{인물}와 최용달^{인물}, 두 인물과 그들이 기고한 글을 통해서 그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모리타니_가쓰미^{인물}, 유진오^{인물}, 최용달^{인물}, 이강국^{인물} 등이 모두 몸담았던 경성제국대학^{기관}이 존재한다. 나아가 1929년03월^{시간}의 사상순례^{사건}는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과학의_깃발_아래에서10호^{저서}에 실린 최용달^{인물}의 기고와 같은 달 신흥1호^{저서}의 발간을 통해 1929년07월^{시간}까지 사건의 의미가 연결되는 셈이다.

사건(Event) 클래스는 기존 연보의 정보 기술에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기 어려운 범주였다. 하지만 공동 작업인 온톨로지 설계에 근거하여 입력한 데이터는 ‘사건’을 다양한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풍요롭게 구성한다. 이러한 의미의 발견이 사건(Event) 클래스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웹 환경이라는 조건과 온톨로지에 기반한 데이터 입력은 아날로그 환경의 선형적 기술에서 고립적으로 제시된 정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한다. 이번 절에서는 온톨로지에 기반하여 입력한 데이터가 지식인 한 사람의 생애사 중 ‘사건’에 그 의미를 풍요롭게 부여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데이터가 인물 사이를 연결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공동 연구와 새로운 인문학 논점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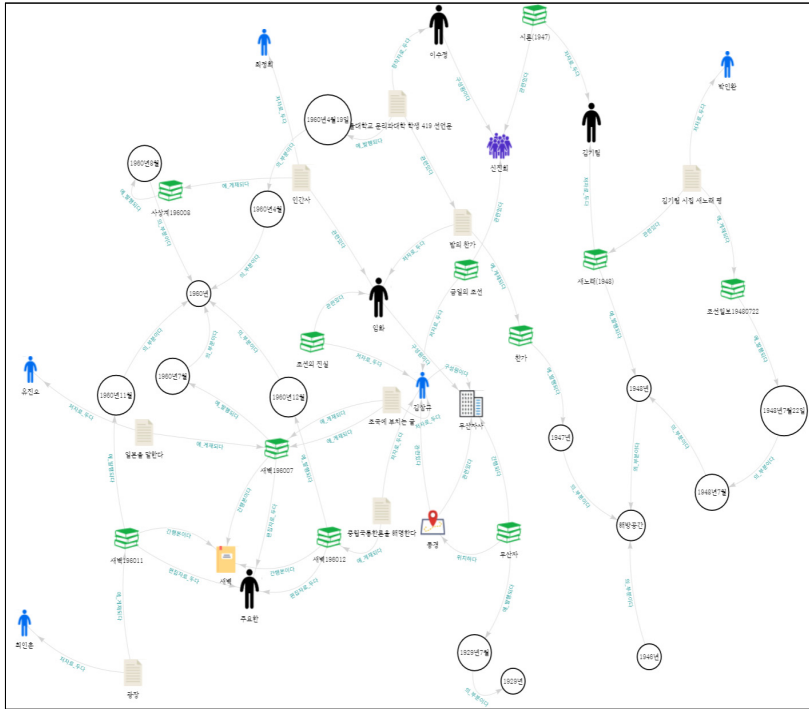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편찬자들은 온톨로지 설계를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 따라서 작업의 진행에 따라서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공동 연구 및 토론이 가능하며 그에 기반하여 새로운 인문학 논점의 제안이 가능하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작업 과정에서는 인물 사이의 연결은 크게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는 두 인물이 직접 하나의 노드로 연결되는 경우였으며, 또 하나는 둘 이

결한 향의방문^{사진}이 그 예이다. 유진오^{인물}가 쓴 소설 이혼^{말글}이 김광진^{인물}과 노천명^{인물}의 연애를 다루었다는 스캔들이 돌자, 노천명^{인물}의 친구인 최정희^{인물}와 모운숙^{인물}이 유진오^{인물}를 향의방문^{사진}하였다. 향의방문^{사진}은 노천명^{인물} — 최정희^{인물} — 모운숙^{인물}의 친분관계에 근거해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작가 세 사람의 친분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쳐 있지만,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서 구축한 향의방문^{사진} 지식 관계망을 통해 단체사진 이광수_이선희_모운숙_최정희_김동환(1932)^{시각자료}, 모운숙^{인물}이 쓴 기사 노천명_시집 『산호림』_소개(1938)^{말글}, 노천명이_최정희에게_보낸_엽서(1939)^{필사본}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세 작가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진과 엽서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했으나, 하지만 온톨로지에 근거한 데이터 편찬을 통해 개별 연구자들이 입력한 노드 데이터가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

유진오와 최정희는 하나의 사건을 매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를 풍부하게 조망하게끔 해주는 대표적 예시이다. 이와 같이 두 인물이 하나의 정보를 매개로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직접적인 연결 관계 밖에 있으면서 두세 단계의 매개를 거쳐 여러 인물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드러나는 흥미로운 정황 또한 존재한다. 보통 한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는 최정희^{인물}, 유진오^{인물}, 김삼규^{인물}, 박인환^{인물}의 연결이 그것이다.

[그림 10]에서는 각 인물이 관계망 외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편찬자 김윤진, 김도민, 장문석, 이은지가 온톨로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 지식인 네 명의 연결이 가능했다. 매개가 되는 데이터는 임화^{인물}와 김기림^{인물}과 그들의 책, 신진희^{인물}, 잡

37)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향의방문^{사진}’ 문서
<http://dh.aks.ac.kr/imk/index.php/향의방문>.



[그림 10] 최정희인물, 김삼규인물, 유진오인물, 박인환인물의 지식관계망³⁸⁾

지 새벽문헌, 신문 조선일보 문헌 등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네 사람이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연결이 역으로 네 사람의 지식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정희인물의 장편소설 인간사 말글(1960, 연재)의 서사가 당시 월북 후 이미 숙청 소식이 알려져 있던 임화인물과 1930년 시간 무렵의 동경 공간이라는 시공간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지만,³⁹⁾ 이 상상력의 근거와 의미는 충분히 음미 되지 못

38)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최정희인물, 김삼규인물, 유진오인물, 박인환인물의 지식관계망’ 문서, http://dh.aks.ac.kr/imk/index.php/최정희_김삼규_유진오_박인환의_지식관계망.

하였다. 가령, 최정희^{인물}가 이와 같은 상상력을 1960년^{시간}이라는 시간에 제시하고 재현할 수 있었던 맥락은 밝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10]의 지식 관계망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안할 수 있다. 1960년^{시간} 4.19혁명^{사건} 이후 일본^{공간}에 망명 중이던 김삼규^{인물}는 귀국하여서 중립국통일론을 제안하였다. 그가 글 조국에_부치는_글^{말글}을 발표한 잡지는 새벽196007^{저서}이었는데, 4개월 후 같은 잡지인 새벽196011^{저서}에 최인훈^{인물}은 소설 광장^{말글}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새벽196012^{저서}에 김삼규^{인물}는 중립국통한론을_해명한다^{말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삼규^{인물}는 임화^{인물}와 마찬가지로 1908년^{시간} 출생으로 함께 1930년^{시간} 전후 동경^{공간}의 무산자사^{기관}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김삼규^{인물}가 당시 한국의 담론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던 맥락 중 하나는 동경^{공간}에서 간행된 그의 저서 금일의_조선^{저서}이 신진회^{단체} 등 1950년대^{시간} 한국^{공간} 대학생의 독서 대상이었던 상황에 있었다. 1950년대^{시간} 한국 대학생들은 김삼규^{인물}의 저서 외에도 해방공간^{시간} 김기림^{인물}의 시론^{저서}를 비롯하여 남월북 문학자의 단행본을 읽었는데,⁴⁰ 그 흔적은 신진회^{단체}의 회원 이수정^{인물}이 초안한 서울대학교_문리과대학_학생_4.19 선언문^{필사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¹ 유진오^{인물} 역시 김삼규^{인물}와 같은 지면 새벽196007^{저서}에 대담 일본을_말한다^{말글}를 발표하였으며, 김삼규^{인물}가 1960년^{인물} 일본^{공간}에서 간행한 조선의_진실^{저서}에서도 동경^{공간}의 임화^{인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그림 10]의 연결이 보여주는 바는 1960년^{시간} 4.19혁명^{사건}은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다른 한편 김삼규^{인물}라는 식민지 지식인이 현해탄^{공간}을 건너와 한국의 담론장에 등장하는 사건

39) 손유경(2018), 「잔해(殘骸)의 목격 — 최정희의 『人間史』론」,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pp. 429-433.

40) 오제연(2014),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p. 62-66.

41) 장문석(2016),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pp. 357-359.

이기도 하였으며, 텍스트^{말글}의 형태로 입화^{인물}가 귀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입화^{인물}와 김삼규^{인물}는 1908년^{시간} 출생이며, 유진오^{인물}와 최정희^{인물}는 1906년^{시간} 출생으로 동년배이다. 1960년^{시간} 8월^{시간} 사상계^{문헌}에서 연재를 시작한 최정희^{인물}의 인간사^{말글}가 입화^{인물}를 재현한 것은 이러한 당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결 자체가 인간사^{말글}의 의미를 한정해서는 안 되며, [그림 10]이 제안하는 연결에 근거하여 인간사^{말글}의 의미를 보다 두텁게 읽는 작업이 이후의 작업으로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박인환^{인물}의 경우도 [그림 10]에 근거한다면 김기림^{인물}과의 연결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최정희^{인물}, 유진오^{인물}, 김삼규^{인물}, 박인환^{인물}을 연결한 [그림 10]이 이해하는 1960년^{시간} 4.19혁명^{사건}의 시간은 몇 가지 노드 데이터를 경유하여 해방공간^{시간}의 시간, 그리고 1930년^{시간} 전후 동경^{공간}의 시간과 단속적으로 연결된다. 1906년^{시간} 및 1908년^{시간} 출생 한국 근대 지식인에 주목할 경우, 1930년^{시간} 전후 동경^{공간}의 사회주의 운동, 해방공간^{시간} 서울^{공간}의 정치적 실천과의 관계 속에서 1960년^{시간} 한국^{공간}의 4.19혁명^{사건}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작업은 설계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였으며,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작업한 근대 지식인 1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항의방문^{사건}처럼 두 인물이 직접 연결되면서 기존에 주목받지 않던 사건을 재조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정희^{인물}, 김삼규^{인물}, 유진오^{인물}, 박인환^{인물}의 연결이 보여준 경우처럼 직접 매개가 없는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인문학적 논점을 제안할 수 있다.

3.4. 편찬 데이터의 확장 및 데이터의 성격에 적합한 시각화의 가능성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편찬자들이 각자 지식인 1명의 생애와 실천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기술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지금까지 온톨로지에 근거하여 입력한 데이터가 다양한 연결이 가능하며, 그 연결이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제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3장 2절에서는 인물 1명의 생애사 기술에서 사건(Event)이라는 기존의 아날로그 연보에서 충분히 서술되지 않는 클래스에 주목하였으며, 3장 3절에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연결을 살펴보았다. 3장 4절에서는 공동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클래스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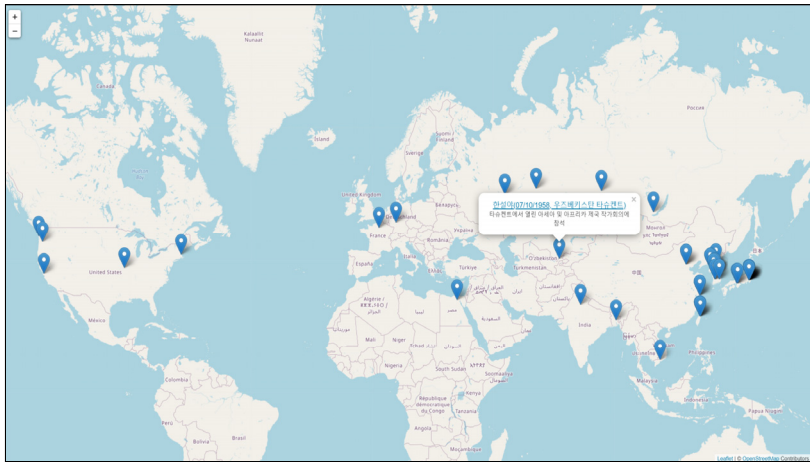
인물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편찬하더라도 시간(Time), 공간(Location), 기관(Institution) 등 다른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 역시 함께 입력되며 때로는 데이터 사이에 접점을 형성한다. 이를테면 편찬자 김윤진은 1955년 최정희의 생애사 데이터 “「무너진 삼팔선」 공연^{사건} isSetIn 시공관^{공간}”을 입력하면서 시공관^{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였는데, 편찬자 이은지 역시 1950년 박인환의 생애사 데이터 “국민예술제전^{사건} isSetIn 시공관^{공간}”을 입력하였다. 1955년의 ‘「무너진 삼팔선」 공연^{사건}’과 1950년의 ‘국민예술제전^{사건}’은 모두 ‘시공관^{공간}’이라는 하나의 공간과 연결된다.

[그림 11]의 왼쪽 이미지는 동경^{공간}으로 검색한 후 1단계 출력을 한 결과이다. 공간(Location) 클래스에 속한 ‘동경’ 노드로 검색을 한 경우, 편찬대상인 한설야, 최정희, 최재서, 이청원, 김삼규, 유진오, 주요섭과 편찬대상이 아닌 최용달, 이강국 등 인물(Person), 세이소쿠영어학교, 아오야마학원, 미카와유치원, 니혼대학, 무산자사, 신흥과학사 등 기관(Institution), 2·8독립선언, 사상순례, 제1회대동아문학자대회, 제2회대동아문학자대회, 한일회담준비조사파견, 한일회담 등 사건(Event), 신

학인회_타이완_방문^{사진} 등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3장 2절과 3절에서는 데이터의 연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데이터는 클래스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며, 데이터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는 박인환, 유진오, 박정애, 한설야, 최정희, 주요섭, 박홍식, 김삼규의 주요한 이동의 좌표를 오픈 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Leaflet.js⁴²⁾의 마커로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지도에 여러 명의 좌표를 동시에 출력하면, 한 명의 좌표를 출력했을 때는 확인할 수 없는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냉전이 한국 근대 지식인의 이동 가능 영역을 분할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분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공간}을 선택한 최정희



[그림 12] 박인환, 유진오, 박정애, 한설야, 최정희, 주요섭, 박홍식, 김삼규의 근대 지식인지도⁴³⁾

42) <https://leafletjs.com/>.

43)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근대지식인지도’
http://dh.aks.ac.kr/imk/index.php/한국_근대_지식인_관계망.

인물과 주요섭인물, 그리고 북한공간을 선택한 한설야인물의 경우이다. 1921년 시간 한설야인물은 동경공간의 니혼대학기관에서 수학하였으며, 1930년 시간 최정희인물 역시 동경공간의 미카와유치원기관에서 근무하였다. 1934년 시간과 1935년 시간 최정희인물과 한설야인물은 함께 전주형무소기관에 수감되고 전주지방법원기관에 재판을 받았으며, 1920년 시간 한설야인물과 1934년 시간 주요섭인물은 베이징공간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냉전 이후 한설야인물은 1947년 시간 소련기행사건을 위해 소련공간의 이르꾸쯔꾸공간, 푼스크공간, 스텔드르브스크공간, 까잔공간을, 1949년 시간 평화옹호세계대회사건을 위해 프랑스공간 파리공간를, 1956년 시간 아세아_작가대회사건을 위해 인도공간 뉴델리공간를, 1957년 시간 아세아아프리카단결회의사건을 위해 이집트공간 카이로공간를, 1958년 시간 아세아_및_아프리카_제국_작가회의사건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간 타슈켄트공간를 방문한다. 주요섭인물은 1955년 시간 제26차 국제펜대회사건을 위해 동파키스탄공간 다카공간를, 1959년 시간 제30차 국제펜대회사건을 위해 독일공간 프랑크푸르트공간를, 1960년 시간 아시아민족반공대회를 위해 타이완공간 타이베이공간를, 1963년 시간 미주리대학 강연을 위해 미국공간 미주리공간를 방문한다. 최정희인물은 1965년 시간 대만성부녀사작협회단체 초청으로 타이완공간 타이베이공간를, 1967년 시간 파월장병 위문중군작가단단체의 일원으로 베트남공간 사이공공간을 방문한다. 1945년 이전 한반도,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공유하던 최정희, 주요섭, 한설야는 냉전과 분단으로 인해 1945년 이후에는 이동 가능한 지역이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같은 냉전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공간 동경공간과 미국공간 메사추세츠공간로 이동의 범위가 한정된 유진오인물과 비교할 때, 주요섭인물은 1918년 시간 일본공간 동경공간, 1927년 시간 중국공간 상하이공간, 1927년 시간 미국공간 캘리포니아공간, 1934년 시간 중국공간 베이징공간, 1955년 시간 동파키스탄공간 다카공간, 1957년 시간 타이완공간 타이베이공간, 1959년 시간 독일공간 프랑크푸르트공간, 1960년 시간 타이완공간 타이베이공간,

1963년^{시간} 미국^{공간} 미주리^{공간} 등 이동의 시간과 범위가 무척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 시기에 남북 체제 선택에 따라서 이동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온라인 지도에 구체적으로 마커로 출력하면서 비교할 때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현 단계보다 데이터가 더 입력이 된다면, 개인의 이동을 넘어서 냉전기 도시와 기관의 연결이라는 논제로 확장될 수 있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한국 지식인의 해외 방문은 특정 사건이나 단체, 기관과 연결된 경우가 상당하다. 각각의 공간이 어떤 사건 혹은 단체와 연결되는지 보다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은 사례로 지도에 표시하였지만, 한국근대지식인이 타이완 방문이 거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지식인들이 어떤 도시를 자주 방문하며, 그것이 어떤 단체 및 사건과 관련되는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각 사건에 참여한 인물과 국가를 지도로 정리하고, 그것을 사건별로 비교한다면 한국근대지식인이 조우했던 냉전기 세계 지식인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논제는 한반도 바깥에서 남북 지식인의 만남과 어긋남이라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남북 지식인의 이동 범위는 냉전의 영역에 따라 나누어져있고, 그 구별에 따라서 남과 북의 지식인은 근접하나 어긋났다. 주요섭^{인물}과 한설야^{인물}가 가장 근접했던 것은 1955년^{시간}과 1956년^{시간} 남아시아에서이다. 주요섭^{인물}은 1955년^{시간} 제26차국제펜대회^{사건}를 위해 동파키스탄^{공간} 다카^{공간}를, 한설야^{인물}는 1956년^{시간} 아세아_작가대회^{사건}를 위해 인도^{공간} 뉴델리^{공간}를 방문한다. 두 사람 모두 냉전의 구도 안에서 특정 단체와 사건과 연관이 있는 형식으로 남아시아를 방문하였지만, 그들은 어긋났다.

이 글은 공간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시각화의 문제를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현재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에서

는 공간(Location), 단체(Group), 사건(Event) 외에도 문헌(Book), 언론(Press), 저서(Volume), 신문(Newspaper), 말글(Writing), 필사본(Manuscript), 시각자료(Visual) 등의 다양한 클래스를 설계하였으며, 각 클래스별로 노드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입력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동시에 웹환경을 활용하여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 또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4. 디지털 인문학과 공동 글쓰기

이 글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참여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의 시도를 사례로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와 지식의 공동생산이라는 논제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서론에서 검토해본 것처럼 공동 연구에 대한 선학의 신중한 염려를 존중하여, 연구자의 협동이 새로운 논제를 열어가는 공동 연구의 미덕을 보존하고 동시에 연구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위키 플랫폼’과 ‘데이터’라는 두 가지 계기로부터 새로운 공동 연구와 협동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위키 플랫폼을 공동작업의 플랫폼으로 선택하여, 웹 환경의 디지털 미디어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비선형적이며 조합적 글쓰기를 시도하는 동시에, 여러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공동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데이터의 설계 및 입력의 과정을 통해 인문학 연구자의 협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인문학적 통찰을 모아서 식민지와 냉전을 경험하였던 한국 근대 지식인의 실천과 상상을 기술하기에 적합한 온톨로지를 공동 작업으로 설계하였으며, 이후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온톨로지를 보완하였다. 공동의 온톨로지에 기반하여 참

여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다른 참여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인문학 논제를 발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위키 플랫폼’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행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연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학 지식의 공동생산 플랫폼은 ‘위키 플랫폼’ 외에도 다양하다. 이후 다양한 플랫폼과 작업 형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날로그 기반의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와 디지털 환경의 데이터 기반의 인문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인문학 연구의 지평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 료】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http://dh.aks.ac.kr/imk/>.

【논 저】

- 김지선 · 장문석 · 류인태(2021),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김현 · 임영상 · 김바로(2016),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 류인태(2020),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_____(2019),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 손유경(2018), 「잔해(殘骸)의 목격 — 최정희의 『人間史』론」,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 오제연(2014),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윤대석(2017), 「『신흥』과 경성제대 학지」, 『국제어문』 73, 국제어문학회.
- 이기백(1994), 「공동연구와 개인의 책임」, 『연사수록』, 일조각.
- 장동룡(2020),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주제로 한 가상박물관 설계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 장문석(2016),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 정과리(1998), 『문명의 배꼽』, 문학과지성사.
- 조형래(2017), 「워드프로세서 · 글쓰기 · 문학, 1980 · 1990」, 『동악어문학』 73, 동악어문학회.
- 빌렘 플루서(2015), 윤종석 역,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xbooks.
- 이시다 히데타카(2017), 윤대석 역,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 사회평론.
- 질 들뢰즈(2004),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122 인문논총 제78권 제1호 (2021.02.28.)

<http://mangwoopark.cafe24.com/wiki/> (검색일: 2021.2.22.).

원고 접수일: 2021년 2월 20일

심사 완료일: 2021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26일

ABSTRACT

Digital Humanities and Co-production of Knowledge:
Wiki Platform and Compilation of <Archive of Intellectuals in Modern Korea>

Jang, Moon-seok* · Kim, Yoonjin** · Lee, Eunji*** ·
Song, Gabae**** · Ko, Ja-yeon***** · Kim, Ji-sun*****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 of digital humanities and co-production of knowledge around the Project of <Archive of Intellectuals in Modern Korea> based on the wiki platform and its possibilities.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a new possibility of co-production of humanities knowledge can be open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Chapter 2, we consider what possibilities the writing of the Wiki platform could open to writing in humanities. Wiki is a suitable platform for sharing tasks and can identi-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Teaching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Frontier College, Inha University

***** Ph.D Student, Major in Cultural Informatic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rresponding Author)

fy the process of joint research. At the same time, Wiki enables combinatorial writing that actively utilizes the digital environment through hypertext and the function of extension and embedding of wiki. In Chapter 3, we discuss that data and co-production discover new humanistic issues. Participants jointly designed ontology based on humanities knowledge. In addition, when sharing and utilizing the data entered according to the ontology, a new humanistic thesis was discovered. This article confirms that collaboration using data in a digital environment can open new possibilities for humanities research. Afterwards, the task is to enter data in earnest and realize the possibility of this article's discovery.